

일본 신화: 발계

산 자의 세계로 돌아온 이자나기는 황천에서 옮겨온 부정함을 씻으려 했습니다. 이자나기는 옷을 벗어던지고 물에 들어가 몸을 정화했습니다. 벗어던진 옷에서 새로운 신들이 탄생하였고, 이자나기가 몸을 정화하면서 더욱 많은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나기가 얼굴을 비볐을 때, 신도(神道)의 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 명의 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른쪽 눈에서 태어난 밤의 주인이자 달의 신 쓰쿠요미, 코에서 태어난 바다와 폭풍의 신 스사노오였습니다. 이들 신이 탄생하면서 천지개벽의 신화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기록된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에는 이자나기의 발계 의식이 치러진 곳은 휴가국(지금의 미야자키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남동쪽으로 아득히 먼 위치에 자리하며 일출과 가장 가까운 장소이자 신들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유에서, 8 세기 당시의 도읍이었던 나라에서 일본 신화의 편찬자들이 휴가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과의 연관성은 지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휴가(日向)는 에도 시대(1603-1867) 이전의 지역 구분인 ‘국(國)’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을 의미하는 ‘日’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국명이었습니다.

발계는 신도(神道)에서 중요한 의식으로서 예배를 올리기 앞서 심신을 깨끗이 하고자 치러졌습니다. 신사에서는 입구에서 손과 입을 씻어 발계 의식을 치릅니다.